

# 돔구장, 약인가? 독인가? : 미디어에 나타난 돔구장 건설 관련 사회적 담론 분석

## Domed Stadium, Medicine or Poison? An Analysis of Social Discourse on the Construction of a Domed Stadium Produced in the Media

박재우

한양대학교 생활스포츠학부

Jae-Woo Park(kpjw11@hanmail.net)

### 요약

본 연구는 십 수 년 간 언론매체를 통해 돔구장 건설 관련한 담론이 어떻게 형성되고 또 재생산되었는지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특히 신문을 중심으로 한 언론매체들이 돔구장과 관련하여 그동안 어떠한 사회적 담론을 구성했는지를 과정적 맥락적인 관점에서 바라봄으로써 돔구장과 관련된 정치적, 경제적, 그리고 사회문화적 맥락에 대한 논리적인 이해와 해석을 시도하고자 하였다. 이를 통해 본 연구는 크게 세 가지 측면의 사회적 담론이 형성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첫 번째로, 돔구장 건립을 찬성하고 지지하는 '찬성'담론이 형성되었다. 여기에서 가장 핵심적인 담론은 야구발전과 중흥을 염원하는 '야구계의 숙원사업', 그리고 도시 이미지 제고와 지역경제 발전으로 대변되는 '돔구장 건설의 경제적 효과'였다. 두 번째로 돔구장 건설을 반대하고 비판하는 '반대' 담론이 형성되었다. 반대담론의 중심에는 '사업절차의 투명성 부족'과 '수익 타당성 부재'라는 인식이 강하게 자리 잡았다. 돔구장 건설에 대한 찬성과 반대의 대립구도 속에서 세 번째로 민·관이 '소통'과 '참여'를 통해 야구장 문제를 합리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거버넌스 담론이 등장하게 되었다.

■ 중심어 : | 돔구장 | 사회적 담론 | 야구발전 | 미디어 |

###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paper was to analyze a social discourse on the construction of a domed stadium produced in the media. In particular, the article sought to explore and interpret the political, economical, social and cultural contexts of the building of a domed stadium by looking at how media sources with newspapers as the central source of information have produced and formed social discourses regarding the construction of a domed stadium. In a concluding perspective it was confirmed that the three aspects of social discourses have been produced and formed. First, a 'approval' discourse supporting the building of a domed stadium has been produced and formed. Second, a 'opposite' discourse criticizing it has been produced and formed. Third, in the confrontation between the approval and opposition of the building of a domed stadium, a 'governance' discourse, which the construction of a domed stadium should be solved rationally through the communication and involvement of the private and governmental sectors, has been produced.

■ keyword : | A Domed Stadium | Social Discourse | Baseball Development | Media |

## I. 서론

1982년에 출범한 프로야구는 비가 오면 경기가 중단되는 악순환을 30년째 반복하고 있다. 비단 날씨문제 뿐만 아니라 60년 이상 된 대구구장, 50년이 다된 대전과 광주구장, 30년이 넘는 잠실구장 등 우리나라의 야구장 시설은 노후하고, 인프라가 매우 낙후되어 있다. 때문에 90년대 초반부터 열악한 야구장 시설에 대한 문제점이 대두되기 시작했고, 야구대표팀이 국제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거둘 때 마다 야구장 인프라 개선에 대한 청사진이 정치권과 지자체를 중심으로 제시되어 왔다[35].

특히, 2006년 WBC(World Baseball Classic) 4강과 2009년 WBC 준우승, 2008년 베이징올림픽 금메달을 계기로 돔구장 건립을 촉구하는 국민적 여론이 높아지자, 서울을 비롯한 안산, 성남, 대구, 광주 등의 지자체에서는 돔구장 건설계획과 공약을 쏟아내었다. 그러나 대부분 사업 자체가 불투명한 상태로 아무런 결실을 맺지 못하고 있다. 유일하게 서울 고척동 돔구장만이 감사원의 사업타당성 부족 지적 등 찬반 논란에도 불구하고 2013년 12월까지 완공을 목표로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30].

돔구장은 4계절 날씨에 관계없이 야구 경기를 할 수 있는 시설이다. 이러한 돔구장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는 90년대 중반부터 시작되어 10여년 이상 진행되어 왔지만 그 결과는 지지부진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결과’보다는 돔구장 건설계획과 공사가 추진되기까지의 ‘과정’에서 형성된 담론에 주목하고자 한다. 즉, 돔구장에 대한 사회각계 각층의 다양한 목소리와 이를 통해 형성된 담론(談論)에 초점을 두고자 한다. 담론은 사전적으로 “어떤 주제에 대한 체계적인 말이나 글”[5]을 의미하며, 이러한 “담론은 현실의 각종 사건 및 행위들을 해석하는 ‘해석적 틀’ 혹은 인지적 틀’을 제공한다[34].

그동안 야구계를 비롯해 국민 여론에 민감한 정치권과 지자체에서는 야구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 도시 브랜드 제고 등을 주장하며 돔구장 건립의 당위성과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앞장서왔다. 대표적인 사례로, 프로야구 선수협의회는 2003년 돔구장 건립을 위한 100만인

서명운동의 취지를 다음과 같이 역설하고 있다:

미국은 휴스턴 애스트로스의 홈구장인 애스트로돔 등 8개, 일본은 도쿄돔 등 6개의 돔구장이 있지만 82년 출범 이후 21년째를 맞은 한국은 단 1개의 돔 구장도 없고[49]...경기장 시설 등은 걸음마 수준에 불과하여 돔구장 설립이 침체돼 가는 프로야구의 인기를 되살릴 수 있는 획기적 전기가 될 것이다 [48].

역사적인 2006년 WBC 4강 진출 이후, 당시 한나라당 박진 의원은 “세계 4강에 걸맞은 인프라를 갖춰야”[72] 하며, “야구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고조된 지금이야말로 돔구장과 유소년 전용 야구장을 건설할 수 있는 호기가 될 수 있다”고 주장하여[21] 돔구장에 대한 정치권의 높아진 관심을 대변하였다. 잇따른 국제대회의 승전보로 돔구장이 사회적 이슈로 부각되자, 2009년 3월 방영된 MBC 100분토론 ‘한국야구, 미래를 말한다’를 필두로, 2009년 11월 한국야구발전연구원이 주최한 ‘돔구장 건립과 야구산업 발전 방향 모색’ 등 수차례에 걸친 토론회가 이어져 돔구장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결집시켰다. 이러한 호재를 등에 업고 국내 1호 돔구장 건설 계획을 발표한 박주원 안산시장은 “각종 수익시설을 돔구장 안에 갖추면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고[43], 이후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서 돔구장 건설 공약은 단골 메뉴로 등장하였으나, 앞서 전술한 바와 같이 모두 말의 성찬에 그치고 말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구계의 숙원사업에 대한 정치권과 지자체의 적극적인 관심은 돔구장 건설에 대한 기대감을 고조시켰고, 이는 언론 보도과정을 통해 증폭되어 돔구장 건설을 ‘찬성’하는 공감대가 형성되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돔구장 건설을 반대하는 의견도 제기되어 왔다. 반대의 목소리는 대부분 사업타당성 부족, 주민부담 증가, 사업절차의 불투명, 지역경제 불균형 초래 등의 이유를 명분으로 제기되어 왔다. 대표적으로 “2009년 6월 안산경찰서, 안산환경운동연합 등 20여개 시민사회단체는 ‘안산돔구장 건립반대 대책위원회’를 결성하여 돔구장 건립은 위험한 도박이라고 비난”[50] 하며 반대운동을 전개하였고, 막대한 예산투입에 따른 재개발 사업 둔화를 우려한 ‘광주 도시 및 주거환경연

협회'는 돛구장 건설 반대 집회를 개최하였다"[19]. 이들은 주로 돛구장 건립을 반대하는 성명발표와 집회, 정책토론회 등을 통해 여론몰이에 나섰고, 여기에 일부 언론이 가세하면서 찬반양론이 팽팽히 맞서는 형국이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조성되었다.

이처럼 그동안 형성된 돛구장 건립 관련 담론은 크게 '찬성' 또는 '반대'라는 양비론적 시각의 두 축으로 나누어진다. 그렇다면 이런 관점의 차이가 각각 언론을 통해 어떠한 사회문화적 담론을 형성해왔을까? 이와 관련하여, Heracleous(2006)[70]는 다수가 찬성하고 따르는 '지배담론'과 그러한 지배적 가치에 대해 저항하고 순응하지 않는 '주변담론'으로 사회에서 생성되는 담론이 나누어질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13].

특히, 언론이 형성하는 담론 가운데 신문매체의 사회문화적 담론은 국민들의 여론형성에 중심적이고 지속적인 영향력을 행사한다[12]. 이러한 관점에서 그동안 체육학계에서는 평창동계올림픽 유치과정정보도의 비판적 담론 분석[13], 스포츠에서의 징크스 담론 분석[56], 스포츠 메가이벤트의 경제발전 담론 분석[34], 김연아 '영웅' 만들기와 미디어의 담론 전략[14], TV 맥주광고에서 재현되는 스포츠-젠더 담론 분석[55] 등의 연구들이 수행되었다. 그러나 십 수 년 간 논의되어온 야구장 시설개선이나 돛구장 건설에 대한 담론 분석은 접근조차 못한 실정이다. 유사한 연구로 박재우, 박현욱(2011)[35]은 언론매체에 나타난 담론을 통해 야구장 관련 법 개정 과정을 분석하였다. 그러나 이 논문의 주제는 정책변동 사례에 초점을 두고 있어, 돛구장 관련 담론을 전반적으로 파악하는데 한계를 지니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돛구장 건설계획이 발표되고, 실제 공사가 추진되기까지의 과정 속에서 언론매체가 어떠한 담론을 생산해냈는지에 초점을 맞추어 분석하고자 한다. 즉, 돛구장 건설 관련 담론이 내포하고 있는 가치와 사회적 의미를 검토하고자 한다. 이러한 시도는 체육계 및 우리 사회에 내재된 현실과 변동을 이해하고, 아직 진행형인 돛구장 건설에 대한 새로운 인식의 틀을 제공하는 기회가 될 것이다.

## II. 사회적 담론분석을 위한 연구방법론

### 1. 사회적 담론의 개념적 준거

일반적으로 담론은 Gill(1996)이 주장한 “모든 형태의 문자적, 시각적, 음성적 텍스트라는 정의에 기초하며”[55], 단순히 언어의 체계적 형식인 텍스트 차원을 넘어서 ‘맥락화 된 텍스트’를 의미한다. 여기서 맥락(脈絡)은 “모든 글이나 이야기의 생산, 구조, 해석, 그리고 기능들과 관련된 사회적 상황이 지니는 모든 속성들의 구조화된 형태”[13][73]를 말한다.

이러한 맥락 속에서 언론이 제공하는 텍스트는 단순한 사실의 집합이 아닌 일종의 ‘구성된 현실’로써 특정한 의미를 생산 및 전달하며, 이를 통해 수용자의 태도와 지식에 영향을 미치는[42] 담론으로 기능하게 된다. 특히, 본 연구에서 초점을 맞출 매체와 관련하여 텍스트로서의 뉴스가 갖는 의미를 구체적으로 언급하면 다음과 같다:

하나의 사건이 뉴스로 구성되는 과정에는 특정 조직의 지배적 사고와 언론인 개인의 가치관에 입각한 선택과 배제가 수행된다. 이 과정에서 뉴스는 특정 집단의 이해를 반영하여 현 상태를 유지하는데 기여하기도 하고, 사건을 왜곡하거나 편향되게 보도하기도 한다. 이것은 뉴스가 단순한 정보전달의 기능을 넘어 특정한 가치를 내포하며 이데올로기 전달의 기능을 수행한다는 것을 의미한다[42].

텍스트에 특정한 가치와 이데올로기가 반영되거나 그것의 압력에 의해 생산된 담론은 지배적인 이데올로기를 강화하는 경향을 보이기도 한다. 반면, 담론은 사회적 맥락을 변형시키거나 사회변화를 야기하며, 이데올로기로서의 뉴스는 집단 간의 사회적 갈등을 야기하는 사건을 조명함으로써 사회적 합의과정을 이끌어내는 역할과 기능을 하기도 한다[42]. 이런 관점에서 비판적 담론분석은 van Dijk(2003)[74]의 주장처럼, 사회적, 정치적 맥락에서 다양한 텍스트에 내재된 가치와 이데올로기적 요소를 파악함으로써 각각의 담론을 통해 사회적 지배구조 및 불평등한 사회관계가 어떻게 발생하고, 재생산되는지를 구명(究明)하기[55] 위해 노력한다. 또한 김형곤[12]이 “언론은 현실세계의 수많은 사건과

이슈 중에서 선택과 배제, 장조와 생략을 통해 지배적 담론을 형성한다”고 논의한 바와 같이, 언론이 생산한 담론의 이해와 해석에는 사회적 맥락의 이해도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이론적 준거의 함의는 다양한 시사점을 제공해 준다. 돔구장과 관련한 사회적 담론을 분석하는 본 연구에 있어서도, 텍스트와 맥락 즉, 돔구장 건설 문제와 사회적 맥락 간의 관계 파악에 주의를 기울여야 함을 강조한다. 또한 “담론은 맥락이라고 부르는 사회, 문화적 상황의 특성들을 명문화하거나 표현하며 동시에 형성하기도 하고”[42], 나아가 사회적 현안과 쟁점에 대한 심도 있는 해석의 틀을 제공해주므로 “사회적 관계와 상호작용, 사회구조의 질서와 변동을 이해하려는 접근”[44]이 필요함을 제시해준다.

이에 본 연구는 비판적 담론분석의 관점과 언론의 평형추 역할 즉, 중재담론의 형성과 영향을 함께 고려하여 분석하고자 하였다. 언론에서 제공하는 텍스트는 영상과 음성적 형태도 있지만, 본 연구는 문자적 텍스트에 주된 초점을 두었다. 분석대상을 언어적 기호로 한정하는 것은 영상이나 이미지에 담겨진 메시지가 주관적이고 다의적인 의미로 해석될 수 있는 한계를 보완할 수 있기[11] 때문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담론분석의 방법으로 흔히 이용되는 신문이나 포털 및 뉴스 사이트[11] 검색을 통해 자료를 수집·분석하였다. 이 과정에서 돔구장과 관련된 정치적, 경제적, 그리고 사회문화적 인지의 결과에 대한 논리적인 이해와 해석을 시도하였고, 특히 신문을 중심으로 한 언론매체들이 돔구장과 관련하여 그동안 어떠한 사회적 담론을 구성했는지를 과정적 맥락적인 관점에서 분석하였다.

## 2. 사회적 담론분석을 위한 틀과 분석과정

본 연구는 돔구장 관련 언론보도를 통해 형성된 담론을 비판적으로 분석하는데 주된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한 자료의 수집은 포털 및 신문 검색 사이트를 이용하였다. 구체적으로 한국인이 가장 즐겨 찾는 ‘네이버(Naver)’, ‘다음(Daum)’, ‘야후(Yahoo)’ 등의 검색포털사이트[18]와 한국언론재단의 기사통합검색사이트(www.kinds.or.kr)를 통해 자료를 수집하였다. 즉, 국내

최대의 검색포털사이트 3곳을 통해 주제어인 ‘돔구장’, ‘돔 야구장’을 입력하여 검색되는 신문, 잡지, 블로그, 카페 등의 다양한 자료를 수집한 후, 기사통합검색(Kinds)을 이용하여 전국종합일간신문 및 지역종합일간신문 보도 자료를 추가적으로 취합하였다. 이렇게 수집된 자료는 총1,807건 이었으며, 일차적으로 내용이 중복되거나 핵심적인 내용이 본 연구의 목적을 벗어나는 자료를 제외하고 1,351건의 자료를 실제 분석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이 외에 돔구장 건설에 관한 정치, 경제 및 사회적 맥락을 파악하기 위해 토론 및 공청회, 세미나 자료 등을 추가적으로 입수하여 분석에 사용하였다.

분석대상 자료의 수집부터 이 자료들을 분석하는 일련의 과정은 Tonkiss(2003)[69]의 일반적 담론분석 절차에 근거해 남상우[13]가 평창동계올림픽 유치과정 보도의 비판적 담론분석에서 사용한 4단계 분석 틀을 본 연구에 맞게 수정·보완하여 사용하였다. 남상우[13]는 2단계(분류화) 과정을 ‘지배담론(찬성/지지)’과 ‘주변담론(반대/비판)’으로 기준을 설정했으나, 본 연구에서는 ‘지배’와 ‘주변’ 담론으로만 규정짓지 않고, ‘거버넌스 담론(소통/협력)’을 추가하여 자료를 분류하였다.

아래의 [그림 1] 내용을 토대로 본 연구의 분석과정과 틀을 구체적으로 언급하면, 첫 번째 단계에서는 건설한 내용과 같이 자료를 검색하고 수집하였으며, 두 번째 단계에서는 돔구장 건립 요구에서부터 건설계획 발표 및 공사착공에 이르기까지의 맥락적 범주 안에서 주제별, 내용별로 수집된 자료를 분류하는 작업을 거쳤다. 세 번째 단계에서는 돔 구장 건설을 찬성하는 ‘지지담론’과 주변적 담론으로서 비판하는 ‘반대담론’, 그리고 민·관이 소통하고 협력하는 또 다른 차원의 ‘거버넌스 담론’으로 구분하여 범주화(categorization)를 시도하였다. 이러한 범주화 작업은 Mayring(2000)의 ‘범주전개모델’(category development model)에 의거하여 이정우[54]가 사용한 모델을 토대로 자료 분석 및 분석 범주 종료 후, 구성한 범주화가 타당한지를 확인하는 과정을 통해 범주를 수정하는 순환적인 방식을 채택하였다. 이 과정은 본 연구자를 포함하여 스포츠사회학 전공자(박사 1명, 박사과정원생 1명)로 구성된 전문가 회의를 통해 범주화 작업의 타당성을 확인하는 검증과

정을 거쳤다. 마지막 네 번째 단계에서는 앞서 구성한 각 범주의 내용을 사회적·정치적 맥락을 통해 해석하고, 그것이 갖는 의미를 찾고자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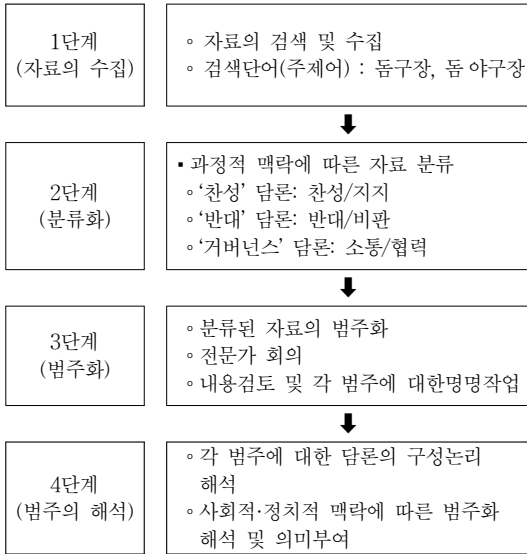


그림 1. 담론 분석 틀(남상우(2007)의 ‘비판적 담론분석의 4단계 과정’ (p. 134)을 수정보완함[13]).

### III. 돔구장 건설에 대한 사회적 담론

#### 1. 돔구장 건설 ‘찬성’ 담론

##### 1.1 야구발전과 중흥 : 야구계의 숙원사업

돔구장 건설에 대한 사회적 관심은 1997년 3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2002월드컵 경기를 개최할 서울특별시 돔구장 건설 사업자로 선정된 LG그룹은 축구 외에 야구경기 등이 가능한 다목적 돔구장의 건설을 추진하려 했다. 그러나 특혜의혹과 IMF 체제하에서 최대 8천억 원의 재원 마련에 대한 부담, 그리고 돔구장에서는 대회가 불가하다는 월드컵조직위원회의 결정 등으로 인해 1년여 뒤인 1998년 5월 백지화 되고 말았다[47].

이후 돔구장 건설에 대한 사회적 여론이 수그러지는 듯 했으나, 2001년 11월 한국야구위원회(KBO)의 박용오 총재가 “야구월드컵의 한국 유치와 프로야구 제9, 10

구단 창단을 위해 돔구장 건설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거듭 피력하면서[8] 돔구장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환기시켰고, 프로야구 선수협의회도 돔구장 건설을 촉구하는 성명과 함께 “한국 야구계의 숙원 사업인 돔 구장 건설을 실현하기 위해 100만인 서명 운동을 대대적으로 실시”함으로써[57] 돔 구장 건설에 대한 사회적 담론을 고조시키는 역할을 하였다. 특히, 박용오 총재는 경제적 효과의 명분을 지닌 국제 스포츠이벤트의 유치와 추가 구단 창단에 따른 야구발전을 주장하며 실질적인 행보를 가속화함으로써 다음과 같은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게 된다:

박용오 한국야구위원회(KBO) 총재는 최근 남궁진 문화관광광부장관을 만나 야구인들의 숙원사업인 돔구장 건설에 대한 협조를 요청, 적극 지원하겠다는 약속을 받아냈다...주무부서인 문화부 체육진흥과의 한 관계자도 5일 “조만간 돔구장건립추진위원회가 발족돼 제원조달 방안 검토와 부지매입 등 본격적인 실무 작업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정부와 KBO는 현재 서울 특성과 잠실을 유력한 후보지로 꼽고 있다[9].

야구계에서 발화된 돔구장 건설담론이 정부차원의 정책이슈로 부각됨에 따라 정치적 선택에 민감한 서울시는 돔구장 건립에 대해 적극적인 담론 생산의 주체로 나서게 된다. 구체적으로 서울시는 2004년 2월 “친전후 야구돔구장을 잠실종합운동장 내 수영장 주변 부지에 건립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이라고 밝혔고, 이에 대해 이명박 서울시장은 “돔구장 부지를 연내 확정하되 접근성 등을 감안해 도심외곽인 강남에 지을 것이며, 도심에서 멀지 않을 것이라고 말해 돔구장 잠실유치”에 힘을 실었다[10].

이처럼 언론보도를 통해 돔 구장 건설이 기정사실화되면서 야구계는 환영의 뜻을 표명하였고, 사회적으로도 잠실 돔구장 건립을 확정짓는 담론이 형성되었다. 그러나 경제적 이슈 보다는 정치적 이슈로 접근되었던 돔구장 건설 논의는 수천억 원의 건설비용을 투자할 기업 유치에 실패하면서 야구계의 숙원사업은 결국 용두사미(龍頭蛇尾)로 끝나고 말았다. 서울시에서만 돔구장 건설이 2번의 실패로 돌아가자 이 후 돔구장 건설에 대한 이야기는 수면 아래로 가라앉는 듯 했다.

그러나 2006년 1월 정치인 출신 신상우 KBO 신임 총재는 잠실 보다는 상권이 좋은 동대문 돔구장 건설계획을 언급하면서 꺼져가던 돔구장에 대한 불씨를 살리게 된다:

신총재가 취임 초기부터 돔구장 건설부지로 동대문을 자주 거론하고 있는 것은 서울시가 내세웠던 잠실종합운동장으로는 자본을 끌어들이기가 어렵기 때문이다...또 때에 따라서는 정치적으로 이 문제를 풀어야 할 뜻도 내비쳤다...신총재는 “곧 지방선거가 열리는데 공약으로 내걸어보도록 움직여보겠다”며 “아무리 일이 늦어져도 임기 내에 공사 착수라도 해놓을 생각”이라고 말했다[3].

또한, 한국 야구대표팀이 2006년 3월 WBC 4강 신화를 이룩하여 국가적으로 야구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사회적으로 돔 구장 건설 여론이 증폭되자, 신상우 총재는 아래와 같이 언급하면서 정치적 행보를 더욱 가속화 되게 된다:

올해 안에 돔구장 건립이 성사될 가능성이 더욱 높다. (돔구장 건립에) 정부에서도 관심이 높아 국가시책으로 건설될 가능성이 있다고 밝힌 신 총재는 이번 선거를 앞두고 여야 정당에서 공약으로 제시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32].

야구계의 숙원사업이 WBC 4강 바람을 타고 정치적 이슈로 부각되자 각종 언론에서는 돔구장의 필요성과 건설을 촉구하는 보도를 쏟아내었는데, 그들이 구성한 다양한 담론 중 대표적인 기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한국야구위원회(KBO)는 3년 전부터 돔구장 건설을 위해 본격적으로 서울시 등 관계기관과 협의해 왔으나 아직도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지 못하고 있다...한국 프로야구는 24년이 흘렀다. 소프트웨어(경기력)는 이제 아시아 야구의 맹주라던 일본이 두려워할 만한 수준이다. 그러나 하드웨어(경기장)는 24년 전에 비해 발전한 게 없다. 24년 동안 2개의 야구장이 새로 지어졌을 뿐이다...일본은 비가와도 야구를 한다[32].

여름 장마가 유난히 긴 기후여건에서 돔구장의 부재는 더욱 아쉽다...예정된 리그 일정이 끝난 뒤에도 우천으로 순연된 경기를 치르느라 선수들은 과감치가 된다. 시장규모와 인프라를

감안하더라도 일본이 무려 6개의 돔구장을 보유하고 있는 것은 시사 하는 바가 크다. 추위저도 문제다. 3월 이전과 11월 이후에는 야구를 할 수 없어 국제대회 유치는 언급생심이다[37].

언론을 통해 구성된 돔구장 건설담론은 분명 야구발전과 중흥을 위한 야구계의 숙원이었지만 그 이면에는 정치담론에 의해 지배받는 양상이 나타나게 된다. 이는 각 지자체가 경쟁적으로 내놓은 돔구장 건설계획을 통해 여실히 드러난다. 프로구단도 없는 안산시와 성남시는 지역사회의 충분한 의견수렴 없이 각각 2007년 5월과 10월에 돔구장 건설계획을 공식 발표하여 경쟁구도를 형성했으며, 대구월드컵경기장 등 체육시설 운영적자에 허덕이는 “대구시도 특별법 통과를 추진하는 등 돔구장 준비”에 나서게 되었다[22]. 이후, 2008년 베이징 올림픽 금메달과 2009년 WBC 준우승은 야구를 국민적 관심사로 부각시켜, 돔구장 건설 여론을 재 점화시켰고, 서울시와 광주시도 돔구장 건립에 동참하는 기제로 작용하였다. 특히, 오세훈 서울시장의 경우 시의회 의 동의절차 없이 “야구계의 염원을 받아들여 구로구 고척동에 건립중인 서남권 야구장을 ‘하프 돔’ 형태에서 ‘전면 돔’ 구장으로 짓겠다고 발표하면서[4] “고척동 구장이 돔으로 건립되는 것은 모든 국민이 야구계에 주는 큰 선물”[61] 입을 강조한 대목을 볼 때, 그 이면에 가려진 정치적 목인을 고려할 수 있게 한다.

이로써 야구계의 오랜 숙원이 해결될 것이라는 거대담론이 한국사회를 지배하게 되었는데, 여기에는 정부도 결정적인 한 몫을 하였다. 정부는 돔구장 건립에 대한 사회적 요구와 여론, 그리고 야구계의 염원을 수렴하여 적극적인 지원의사를 표명하였는데, 실제로 2009년 3월 신재민 문화체육관광부 차관은 다음과 같이 정부지원 의사를 밝혔다:

한국야구위원회(KBO),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해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에 돔구장과 쇼핑몰, 놀이시설을 합친 문화 콤플렉스를 세우는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신차관은 “1조 원 가까이 드는 돔구장은 민간 자본으로 건설하는 게 원칙”이라며, “2002년 한일 월드컵 때 축구장을 스포츠도토도 기금으로 조성한 전례가 있어 이번에도 정부가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23].

정부는 그 일환으로 2009년 7월 돛구장 등에 대한 민간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하여 그동안 돛구장 건설에 있어 걸림돌이 되어온 경제적 이슈를 해결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게 된다.

민간투자가 가능한 사회기반시설의 범위에 돛구장 등 프로스포츠 경기장을 포함한 민투법(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이 개정돼 2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정부는 국제규격 경기시설 등 일정 수준 경기장에 대해서만 허용하던 공연장, 전시장/상점, 대형마트, 쇼핑센터, 관광숙박시설 등을 만들 수 있도록 허용할 방침이다...이 경우 프로야구 구단과 관심기업에서 2조~3조원의 투자가 가능하며...민자사업으로 추진되는 프로스포츠 경기장의 부대사업 대상도 확대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주택건설, 택지개발, 산업단지, 관광단지 개발 등이 가능해지게 된다[27].

같은 맥락에서, 2009년 4월 1일 한나라당 의원인 강승규 대한야구협회장이 돛구장 건설 및 지방 야구장 인프라 개선을 위해 대표발의한 ‘스포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안’이 그해 12월에 통과됨으로써 체육진흥투표권 수익금을 돛구장 건립 등에 지원하고 기업의 적극적인 투자와 마케팅이 가능하도록 최장 25년간 경기장 임대가 가능하도록[35] 법령이 개정되기에 이른다. 이로써 돛구장과 관련한 정부-지자체-기업-구단으로 이어지는 선 순환적 담론이 형성되게 된다.

그러나 한 가지 주목할 사실은 프로야구가 출범한지 십 수 년의 세월이 흐르는 동안 정치권에서 먼저 나서서 돛구장 건설을 촉구하는 담론을 형성하는 일은 단 한 번도 없었다는 점이다. 언론보도를 통해 구성된 돛구장 관련 담론을 볼 때, 정부와 지자체 그리고 정치권에서는 WBC 4강과 준우승, 베이징 올림픽 금메달이라는 극적 사건 이후, 정치적 인기와 연명의 일환으로 면밀한 검토 없이 돛구장 건설에 대한 찬성담론을 야구계의 숙원사업이라는 명분을 들어 깊숙이 개입하는 모습을 보였음을 알 수 있다.

그로 인해 프로야구 출범이후 27년간 1개의 돛구장도 없던 한국사회는 5개의 돛구장 건설계획이 동시에 추

진되는 기현상이 벌어지게 된다. 아직 탈정치화 되지 못한 한국 스포츠의 구조적 환경과 현실 속에서 최소 수천억에서 최대 1조원대의 건설비용이 투입되는 돛구장이 재정자립도가 취약한 우리나라 지자체 곳곳에 생긴다는 믿을 수 없는 현실은 언론보도를 통해 그대로 투영되면서 돛구장을 염원하는 야구계와 대다수의 국민들에게 사실적 담론으로 자리 잡게 되었다.

## 1.2 돛구장 건설의 경제적 효과 : 도시 이미지 제고와 지역경제 발전

돛구장 건립을 선언한 각 지자체들은 공통적으로 ‘도시 브랜드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명분을 내세우며 돛구장 건설에 적극적인 입장을 표명해왔다. 이는 언론보도를 통해서도 잘 나타나있다. 국내 최초의 돛구장으로 추진되었던 안산 돛구장 건립에 대해 언론은 다음과 같은 목소리를 내었다:

안산시와 현대-KBO(한국야구위원회) 컨소시엄은 15일 오전 안산시청에서 야구 돛구장을 비롯한 호텔, 주상복합건물 등 연면적 23만평 규모의 복합문화시설 개발 사업추진을 위한 민자유치 양해각서 협약을 체결했다. 현대-KBO 컨소시엄은 올 하반기 안산시와 사업실시협약 체결을 진행한 뒤 2009년 착공에 들어가 2012년 완공할 예정이다...현대건설 관계자는 “국내 최초의 복합문화 돛시설 건설을 계기로 향후 국내 대표적인 랜드마크 역할을 할 것”이라며 “향후 현대건설은 다양한 형태의 도시 개발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 지역경제 활성화와 국가위상 제고에 기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16].

돛구장 건설은 다양한 고용창출의 효과와 건설경기의 활발, 그에 따른 교통, 숙박시설 증가 및 주변 상권이 발달하고 야구장뿐만 아니라 구장 주변에 들어설 멀티플렉스 영화관, 쇼핑센터 같은 부대시설 효과로 새로운 상권을 형성 상당한 경제적 효과를 누릴 수 있다. 안산은 돛구장 건설로 인해 도시브랜드 강화라는 성과까지 이룰 수 있는 충분한 가능성을 갖고 있다. 안산시에서 발표한 ‘안산문화복합돛구장’ 개발사업 계획안을 보면 새로운 역세권내 고급 주상복합시설을 건설 분양 후 이를 통한 수익금으로 인근에 돛구장을 건설하고 더 나아가 안산 스포츠산업 클러스터를 조성, 스포츠산업의 메가로 거듭나겠다는 중장기적 계획을 볼 수 있다[2].

2차례에 걸친 서울시의 실패 사례와는 달리 안산시는 돔구장 건설을 위한 민자 유치에 성공함에 따라 '새로운 상권 형성'과 '경제적 효과' 그리고 '도시브랜드 강화'라는 담론이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생산·확대되게 되었고, 이후 2009년 '안산돔구장건설추진위원회'가 출범하고, 홍보대사에 연예인 김제동씨가 위촉되면서 경제성을 갖춘 국내최초의 돔구장이 2012년 안산에서 탄생할 것이라는 사회적 담론이 무르익게 되었다.

이러한 담론은 돔구장 건설계획을 발표한 다른 지자체에도 공통적으로 나타났다. 대표적으로 오세훈 서울 시장은 고척동 돔구장 기공식에서 "야구장을 비롯한 체육시설과 문화시설이 합쳐진 서남권 문화·체육 콤플렉스가 완성되면 서남권 지역의 문화경제도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고[41], 구로구 역시 고척동 돔구장 일대를 문화허브도시로 육성하여 서울 서남권의 문화랜드마크로 조성한다"는 입장을 밝혔다[68].

이를 위해 서울시는 유아시설과 사우나 등 "돔야구장에 수익시설을 설치하는 내용의 계획안을 의결"하였고, 이제원 도시계획과장은 "연간 22억 원 상당의 경제적 효과가 발생할 것"이라고 전망하였다[40]. 안산에 이어 서울시에서도 돔구장 건립에 대한 구체적인 청사진이 제시되면서 서남권 지역이 서울의 랜드마크로 발전될 수 있다는 성장담론 또한 커지게 되었다.

2009년 10월 포스코 건설과 돔 경기장 조성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한 대구시와 광주시의 경우도 이런 담론에서 예외가 아니었다.

박광태 광주시장은 "돔구장은 도시브랜드 가치를 올리고 주변 문화, 체육, 관광 및 각종 도시 시설과 결합해 경제적 생산유발 효과도 클 것"이며[59], "돔 구장 건립은 광주 발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업"[7] 입을 강조하였다. 이에 대해 야구팬과 광주시민들은 "명품 돔구장을 건립해 도시 브랜드를 높이는 랜드마크로 활용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으며[38], 지역의 인사들도 언론기고를 통해 돔구장 건설이 지역민의 고용 창출 기회를 확대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목소리를 대변하였다[30].

대구시의 관계자도 2011년 착공해 2014년 완공될 "돔구장이 들어서는 대구체육공원 주변에는 육상진흥센터와 유니버시아드 대회 스포츠 기념관, 대구미술관 등이 들어설 예정이고 대구 대공원 조성도 예정돼 있어 대구 스타디움과 함께 이 일대가 99만~132만㎡ 규모의 스포츠·레저 종합단지로 발돋움할 것"임을 밝혔으며, 이진훈 기획관리실장은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지역의 랜드마크가 될 수 있는 명소로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51].

이상에서 살펴본 각 지자체의 사례와 담론들은 지역주민과 야구계를 비롯한 일반 대중들에게 실현가능한 담론으로서 언론을 통해 비판 없이 보도되면서 돔구장 건설이 지역 경제를 살리고, 도시 경쟁력을 강화하여 해당도시의 미래지향적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는 인식을 심어주는 결정적 기제로 작용하였다.

## 2. 돔구장 건설 '반대' 담론

1990년대 후반부터 논의된 돔구장 건설 관련 담론은 한국 야구가 베이징올림픽과 WBC에서 거둔 쾌거로 인해 지배적인 찬성 담론으로 자리 잡아 왔다. '야구계의 숙원사업', '도시 브랜드 강화' 그리고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명분으로 각 지자체들은 돔구장 건설계획을 발표·추진하였으나 현재 가시적인 성과를 보이는 곳은 서울시 1곳에 불과하다.

이러한 결과가 초래된 데에는 다양한 원인이 거론될 수 있으나,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불거진 돔구장 건립 반대 담론이 중요한 원인으로 작용하였다. 반대담론의 핵심은 '사업 절차의 투명성 부족'과 '수익 타당성 부재'



그림 2. 대구광주 돔 경기장 조성을 위한 양해각서 체결 모습[51]



로 함축된다. 2009년 10월 포스코 건설과 돝구장 건립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한 후 돝구장 반대여론이 가장 뜨거웠던 곳은 광주시였다. 한 조사기관의 여론조사 결과, 돝구장 찬성이 48.2%, 개방구장 찬성이 49.3%로 나타나[65] 광주는 찬반 대립이 팽팽한 양상을 띠었다. 특히, 지방선거를 앞두고 “돝구장에 반대하는 광주시장 후보군,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북구주민, 재개발조합협회 등은 개방형 일반구장 건립과 무등경기장 야구장 개선을 대안”[36]으로 내놓으며 돝구장 건립의 강력한 반대담론을 형성하였다.

지역 시민단체인 ‘광주 도시 및 주거환경연합회’의 경우 돝구장 건설을 광주의 대운하 사업으로 간주하고, 시청 앞에서 돝야구장 추진과 신도시 건설을 반대[28]하는 항의 집회를 벌이기도 하였다. 광주 돝구장 건설을 반대하는 세력이 “사업추진과정의 비민주성과 타당성 검토 부재, 민자 사업에 대한 특혜성 시비, 건립 이후 사후관리와 적자보전 방법 등을 이유”[61]로 반대담론을 확대해 나가자, 언론도 비판적인 시각에서 돝구장 관련 담론을 구성하게 된다:

일본은 도쿄돔을 제외하고는 모두 적자에 시달리고 있다. 돝구장은 건립하는데도 거액이 들어가지만 유지관리비가 엄청나는 것이 더 큰 문제다...도쿄는 외곽까지 포함하면 인구가 2000만 명에 이른다. 광주는 많이 잡아야 200만 명이다...광주의 경제규모나 야구열기로 볼 때 돝구장 운영은 도무지 해답이 나오지 않는다. 전문가들은 우리나라에서 돝구장이 성공할 수 있는 곳은 서울 정도라고 말한다. 광주에 돝구장이 예정대로 들어선다고 해도 결국 애물단지가 될 가능성이 크다[60].

이처럼 돝구장 건립에 대한 지역사회의 찬반 담론이 가열되는 가운데, 사업타당성 검토를 면밀히 진행했던 포스코 건설이 돌연 “수익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사업 포기 의사를 시에 통보”[39]함에 따라 돝구장 건설은 백지화로 가닥을 잡게 된다. 결국, “포스코 건설이 돝구장 건설을 포기하게 된 것은 지역 내 반대여론이 높아 돝구장 건설에 필요한 충분한 인센티브 확보가 곤란하고, 이에 따라 수익 타당성이 맞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31]으로 결론지을 수 있다.

광주시의 경우 언론보도를 통해 나타난 반대담론이

박광태 광주시장을 중심으로 한 지자체의 일방적 사업 추진을 견제하는 균형추 역할을 함에 따라, 광주시민에게 선사될 새로운 야구장은 돝구장에서 개방형으로 선회하게 되었다.

이 같은 광주의 반대 담론과 사례는 서울, 대구 그리고 안산에서도 유사하게 형성되었다. 서울시도 2004년 돝구장 건설계획을 발표했으나 막대한 자금을 투자할 민자 유치에 실패하여 결국 백지화된 대표적인 도시다. 이에 대해 서울시 관계자는 다음과 같이 전하고 있다:

수천억 원씩 쓴 전국의 월드컵경기장도 적자에 허덕이고 있다며, 그보다 많은 7천억~8천억이 드는 돝구장에 예산을 투입하기도, 민자를 유치하기도 어려운 실정이라고 말했다[64].

서울시의회 교육문화위원회 소속 최용주 의원(한나라당)은 7월 “고척동 돝구장은 경쟁력과 경제성이 없는 만큼 아마추어를 위한 야외경기장으로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시가 돝구장을 추진하면서 행정적 절차를 거치지 않고 착공한 것에 대해서도 강하게 질타했다[46].

감사원에서 “최근 발표한 지방재정 건전성 진단 및 점검에서 고척동 돝구장의 경제적 타당성을 지적”하면서 “건립을 재추진하거나 지역 프로야구단 등을 유치하여 자금을 확보해 재정 부담을 완화할 것을 통보”하였고[29], 2만석에 불과한 작은 규모, 돝구장 주변의 교통문제 등을 해결해야 한다는 주변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서울시의 돝구장 건립이 3번째 좌초될 위기에 직면하게 된다. 그러나 인구 1,000만 수도의 상징적 특성, 국민적 관심과 야구계의 염원을 고려한 정치권의 지원, 그리고 여러 문제제기에 대해 서울시가 아래와 같이 적극적인 보완의사를 표명함에 따라 국내 1호 돝구장 탄생은 현재 확실시 되고 있다:

서울시는 감사원의 이러한 지적에 대해 꼼꼼하게 보완대책을 세우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서울시는 고척 돝구장으로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고척교 확장 공사 등을 벌여 편익을 높이고 있다...시 관계자는 “고척 돝구장을 위한 재원은 충분히 확보가 되어있으며, 지역에 야구단이 세 곳이 있어 프로 야구단의 구장 이전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며, 감사원에서 언급한 프로 야구단 유치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실제 관

중 동원에 있어서도 “프로야구 평균 관중이 1만 6천여 명이고, 국내 최초의 돔구장이라는 상징성이 있어 더 많은 관중들이 찾아오지 않겠느냐”라고 답변했다. 또한 “고척 돔구장은 원래 아마추어 야구를 위해 보상형식으로 짓는 것이기 때문에, 프로야구와 아마야구 모두 치르면서 구장이 놀지 않게 하고, 일본 도쿄돔처럼 K-pop 공연들도 유치할 예정이라 운용 재원도 확보가 된다”고 말했다[29]

2012년 5월 현재 고척동 돔구장은 골조공사가 진행 중이며, 일정대로 추진된다면 2만2258석 규모로 2013년 12월에 완공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국내 최초의 돔구장 건설을 기대했던 안산시는 그 자리를 빼앗기에 되었다. 안산시도 광주와 같이 찬반 담론이 극명하게 갈리는 모습을 보였다. 인구 73만의 중소도시에서 야구단 없이 돔구장이 들어서면 “대형 유통센터와 주상복합 시설만 들어서는 ‘야구 없는 야구장’으로 전략할 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 일부 시민단체들은 “돔구장 건설 사업이 건설사에만 막대한 이익을 넘기는 특혜사업으로 변질되고 있다”며[66], 돔구장 찬성 측을 비판했다. 안산시장 선거에 출마한 김철민 등 야당소속의 예비후보들도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돔구장 운영관리에 시민세금이 투입될 수밖에 없다”며 “무조건 반대하는 게 아니라 선거가 끝난 뒤 새로운 시장이 사업타당성을 다시 한번 따져보고 추진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15]. 이와 관련하여, “안산경실련과 안산YMCA 등 20여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안산 돔구장 건립반대 대책위원회’는 안산시청 앞에 천막을 치고” 돔구장 건립을 반대하는 농성을 강행해 반대하는 목소리를 더욱 높였다.



그림 3. 돔구장 건립을 반대하는 시민단체의 천막 농성 모습[58]

한편, 2009년 9월 한국야구발전연구원이 주최한 한 토론회에 참석한 이용일 전 KBO 사무총장은 “도코돔 사용료가 경기당 2억 원이 넘는다. 요미우리 같은 인기 구단이 아니면 감당할 없다. 돔구장을 지을 돈으로 광주, 대구, 대전에 새 구장을 마련하는게 낫다”[25]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안산 돔구장 건설에 대한 경제성 논란은 다음의 언론보도를 통해서도 잘 나타나 있다:

국내 최초로 추진 중인 문화복합돔구장 개발 사업을 둘러싸고 찬반논란이 커지고 있다. 가장 큰 문제는 돔구장 건설 이후 관리·운영비다. 안산시는 타당성 용역결과 프로구단을 유치할 경우 연간 10억 원(수익 125억 원, 지출 115억 원)의 흑자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반면, 프로구단 유치를 못할 경우 연간 50억 원의 적자가 예상된다고 전망했다...또 (축구)와~스타디움'이 최근 2년간 20여억 원의 적자를 기록했고, 일본의 돔구장들도 적자운영 사례가 많으며 돔구장이 향후 시 재정에 큰 부담을 줄 수 있다고 주장했다...안산지방자치시민연대는 “도심에 대규모 운동장과 문화시설, 고밀도 주거단지개발을 추진하는 것은 교통, 환경, 삶의 질 등 어떤 측면에서도 적절하지 않다고 주장했다[17].

이처럼 지난 4년여 동안 찬성과 반대 담론이 첨예하게 대립된 안산 돔구장 건설은 2010년 6월 안산시장에 새로 당선된 야당소속 김철민 당선자가 여당소속의 전임시장이 벌여놓은 돔구장 사업에 대해 부정적 견해를 피력하면서 일단락 되게 된다:

안산시가 추진 중인 1조 5천억 원 규모의 프로야구 돔구장 건설 사업에 대해 “프로구단은 나중에 잡을 테니 우선 짓고 보자는 말인데 이는 시민들의 의사가 배제된 철저한 밀실행정의 결과이며 그 종말은 부패였다”고 직격탄을 날렸다...김 당선자는 “시가 대형 개발 사업에 재정을 쏟아 보니 현재 시의 가용 재원이 200억 원에 지나지 않는다”며 “절차상 하자과 시민들이 받게 될 실익, 법리적 검토 등 모든 자료를 시민 앞에 공개한 뒤 시민들이 결정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67].

이로써 돔구장 건설 사업은 원점에서 다시 검토되는 단계로 전략하게 되어,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한 사회적 담론이 어떻게 재형성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대구시의 경우 타 도시에 비해 찬반 담론의 대립구도

가 그리 크지 않았지만, 일부 시의원을 포함한 대구시청 안팎의 목소리는 다음과 같은 반대 담론을 담아냈다:

돔야구장 역시 건립비만 3천~4천억 원이 투입되는 시설인 만큼 지역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보다 냉정하게 분석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돔구장이 대구시 계획대로 2014년 완공되더라도 돔구장이 지역사회에 득이 될지 실이 될지는 몇 년이 더 지나야 알 수 있다...돔구장이 실이 많을 경우 대구시민이 부담을 떠안아야 한다...한 대구시 의원은 “민간사업자에게 대규모 개발 사업권을 주는 조건하에 민간자본으로 건립하겠다는 돔야구장은 대구사회에 득보다는 실이 될 것이라는 게 개인적인 판단”이라며 “대구사회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사업에 대해서는 대구시가 강행할 것이 아니라 지금과 다른 검증 메커니즘을 갖춰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53].

또한, 2011년 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유치에 따른 육상진흥센터 등의 건립이 확정되면서 다음과 같은 우려의 목소리도 제기되었다.

육상진흥센터와 U대회스포츠센터가 대구스타디움(월드컵경기장)처럼 상당한 운영적자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돔야구장까지 무리하게 민간자본을 유치해 건립할 경우, 막대한 운영비 적자뿐 아니라 대구 주택시장 등 지역경제 전반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이들 시설물은 뚜렷한 수익모델이 없어 완공 후 자칫하면 운영적자가 예상된다...또 대구스타디움의 운영적자가 연간 30억 원을 넘는 상황에서, 운영비 적자가 대구스타디움의 2~3배 넘을 것으로 분석되는 돔야구장까지 들어설 경우 대구스타디움 주변 체육시설물의 연간 운영비 적자가 100억 원이 넘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52].

따라서 돔구장 건설에 대한 대구사회의 담론은 대립 구도를 형성하기 보다는 다음과 같이 현실적인 대안을 찾는 방향을 구성되게 된다:

이진훈 대구시 기획관리실장은 “돔구장 건설비는 4000억 원으로 추산되는데 경영개발 사업으로 적정 이익을 내기 위해선 사업 규모가 최소 3조~4조원이 돼야 하나 돔시티 건설사업 규모는 2조원에 불과하다”면서 “사업성이 높지 않지만 특별시비를 차단하기 위해 합리적인 개발 계획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24].

지역 경제계 인사는 “돔구장이 들어서면 좋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없다. 그러나 건립방법이나 향후 운영적자에 대한 고민까지 하면 반드시 돔구장이어야 할 필요는 없을 것”이라며 “대구스타디움 인근은 일반인들이 모여들 수 있는 시설물을 유치해 체육시설의 적자를 최소화할 수 있는 형태로 개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구시 관계자는 이와 관련, “대구시 일각에서도 돔구장에 미련두지 말고 2만5천석 규모의 일반야구장을 건립하는 게 맞지 않느냐는 이야기가 있다”고 말했다[52].

따라서 대구시는 찬반 담론의 큰 마찰 없이 돔구장 건설을 포기하고, 2014년까지 2만5천석 규모의 개방형 야구장의 신축을 결정하게 됐다. 이에 대해 한 언론은 “사실 1천억 원이 더 드는 돔구장 건설은 비현실적이었다. 돔구장으로 증축할 수 있게 건설할 예정이니 대구시로서는 실리를 얻고, 명분도 나름대로 마련한 셈”이라고 밝혀 대구시에서 만큼은 언론보도를 통해 합리적인 돔구장 건설 담론이 구성되었음을 알 수 있다.

### 3. ‘거버넌스’ 담론의 등장 : 야구장 건립 민간 협업체 태동 가능성

포스코 건설의 사업포기로 광주의 돔구장 건설이 무산되자 전갑길 광주시 광산구청장은 “일방적이고, 독선적으로 추진한 돔구장 무산은 당연하다”면서[63] 아래와 같이 강조하였다:

전 청장은 “광주시민들의 공감대 없이 추진한 돔구장 건설이 무산되고 말았다”면서 “아무리 좋은 정책, 반드시 필요한 사업일지라도 일방적, 독선적으로 추진하면 실패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어 야구장 건설문제는 시민들의 참여와 소통 속에서 해법을 찾아야 한다”며 “지난 4개월여 동안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하는 바람에 논란과 갈등만 양산하는 소모전이 벌어졌다”고 지적했다. 또 “대구시의 경우 공청회, 여론조사, 타당성 용역 등을 통해 시민들의 여론을 하나로 모았다”며 “앞으로는 우리 광주시도 중차대한 정책이나 사업을 결정할 때 적극적으로 효과적인 여론수렴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고 덧붙였다[63].

이와 관련하여, 박광태 광주시장은 “앞으로 ‘야구장 건립 시민위원회’를 구성해 지역사회의 다양한 의견을

모아 야구장 형태 및 건립시기, 재원마련 방안 등을 결정하겠다"[26]고 밝혔다. 다소 뒤늦은 감이 있지만 광주시가 거버넌스 담론을 형성해 나간다는 점은 큰 의미가 있다. 그러나 '사후양방문식' 대처가 반복되지 않도록 민·관 협의체가 합리적이고 생산적인 담론의 장을 형성해야 할 것이다.

광주시와 함께 안산시는 지역사회의 '찬성'과 '반대'의 대립양상 여론에 부딪쳐 돔구장 사업이 담보상태에 빠진 대표적인 도시이다. 그러나 최근 민·관이 소통하여 이 문제를 해결하려는 담론이 나타나고 있어 주목을 끈다. 아래의 글은 이러한 거버넌스적 목소리를 잘 드러내고 있다:

경기 안산시가 담보상태에 빠진 안산돔구장 건립사업을 민·관협의체를 통해 해결해 나가기로 했다...올해 돔구장 건립사업의 제추진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시민과 각계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민·관 협의체를 구성·운영할 계획이다...필요할 경우 토론회와 공청회 등도 열어 각계 의견을 수렴해 사업 추진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안산)시는 이번 협의체 구성을 계기로 돔구장 추진 과정에서 빚어진 밀실·특혜 등 각종 의혹으로 실추된 행정 신뢰도를 높일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20].

그러나 일각에서는 이러한 협의체 구성이 돔구장 건설계획 백지화를 위한 지자체의 수순이 아니냐는 우려적인 목소리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민·관 협의체를 두고 돔구장 백지화에 따른 부가적인 책임을 합법적으로 면피하기 위한 '요식행위'에 불과해, 사실상 안산시가 돔구장에 대한 사업 추진 의지가 없음을 반증하는 것이란 분석이다. 건설업계 한 관계자는 일반적으로 민자 사업에서 우선 협상자가 다 구성된 뒤에 민관협의체를 구성해 의견을 수렴하겠다는 것은 민자 사업자로 하여금 '당위성 있는 포기'를 이끌어내기 위한 시간끌기와 명분 쌓기에 불과하다고 전했다[1].

하지만 중요한 것은 돔구장을 지을 것인가? 아니면 포기할 것인가? 라는 결과론적 측면이 아니라, 본 연구에서 초점을 맞춘 '과정' 즉, 해당지자체와 안산시민, 투자기업, 야구계 간에 '소통'과 '협력'이라는 수평적 거버

넌스 담론을 형성하여 어떠한 결정이 내려져도 겹쳐히 수용할 수 있는 선진화된 스포츠 담론을 정착하는 일일 것이다.

#### IV. 결론 : 맺는말

본 연구는 십 수 년간 돔구장 건설계획의 발표와 포기의 반복, 그리고 실제 공사가 추진되기까지의 과정 속에서 언론매체를 통해 어떠한 담론이 형성되고 또 재생산됐는지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특히 신문을 중심으로 한 언론매체들이 돔구장과 관련하여 그동안 어떠한 사회적 담론을 구성했는지를 과정적 맥락적인 관점에서 바라봄으로써 돔구장과 관련된 정치적, 경제적, 그리고 사회문화적 맥락에 대한 논리적인 이해와 해석을 시도하고자 하였다. 이를 통해 본 연구는 크게 세 가지 측면의 사회적 담론이 형성됐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첫 번째로, 돔구장 건립을 찬성하고 지지하는 '찬성' 담론이 형성되었다. 여기에서 가장 핵심적인 담론은 야구발전과 중흥을 염원하는 '야구계의 숙원사업', 그리고 도시 이미지 제고와 지역경제 발전으로 대변되는 '돔구장 건설의 경제적 효과'였다. 이러한 담론은 한국 야구가 WBC 4강과 준우승, 올림픽 우승이라는 쾌거와 돔구장의 필요성을 역설하는 언론보도에 편승하여 한국 사회에 지배적인 담론으로 자리 잡게 되었다.

Heracleous(2006)[70]의 주장처럼, 다수가 찬성하고 따르는 '지배담론'으로서의 찬성담론은 지자체장의 정치적 목적과 결부되어 전국에서 5개의 돔구장이 동시에 추진되는 민지 못할 현상이 나타났다. 그 과정에서 서울과 안산, 광주 등의 지자체는 일반적이고 다소 독선적인 형태로 돔구장 건립계획이 추진되었다. 이들은 '도시 브랜드 강화', '지역경제 활성화'를 외치면서 결과를 위한 형식을 거쳤으나, 야구계 및 시민들과 '소통' 담론을 형성해내지 못하고, Heracleous(2006)[70]의 주장처럼, 지배적인 가치에 대해 저항하고 순응하지 않는 '주변담론'으로서의[13] '반대' 담론을 양산하는 기제로 작용하였다.

이를 통해 두 번째로 돔구장 건설을 반대하고 비판하

는 ‘반대’ 담론이 형성되었다. 반대담론의 중심에는 ‘사업절차의 투명성 부족’과 ‘수익 타당성 부재’라는 인식이 강하게 자리 잡았다. 특히, 광주와 안산에서는 돝구장 건설을 반대하는 시민단체 등의 강한 반발에 부딪쳐 돝구장 건립계획이 무산되는 결과가 초래되었다. 이 과정에서 언론은 비판적인 시각에서 ‘중재’ 담론을 구성함으로써 과거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 유치과정 보도에서 나타났던 극단적인 쏠림 현상과 비판의 부재[13]와는 또 다른 양상을 나타내었다. 즉, 언론 본연의 기능인 평형추의 역할을 비교적 충실히 수행하였다. 이러한 사실은 10여 년 전에 지은 전국의 월드컵경기장들이 매년 수익에서 수십억의 운영적자가 발생하는 애물단지로 전락한 ‘학습효과’가 한국사회에 갖춰져 균형적인 담론을 생산해낸 것으로 분석된다.

돝구장 건설에 대한 찬성과 반대의 대립구도 속에서 서울 1곳을 제외한 광주와 대구는 사업포기, 안산은 아직 결정하지 못한 채 원점에서 재검토로 결론이 나자, 세 번째로 민·관이 ‘소통’과 ‘참여’를 통해 야구장 문제를 합리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거버넌스 담론이 등장하게 되었다. 이는 언론보도를 통해 새로운 스포츠 담론으로 생산되어 선진화된 인식의 틀을 확대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에서는 돝구장 건립과정에서 나타난 한국사회의 담론을 분석함에 있어, 돝구장 건설이 각 지자체에 황금알을 낳는 거위와 애물단지 중 과연 어떠한 선물을 줄 수 있는지에 대한 사회적 맥락을 분석하였고, 이를 통해 언론매체가 중재담론의 형성에 최소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을 부분적으로 확인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으로 제안하고 싶은 점은, 아직까지 돝구장은 진행형 즉, 완성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국내 1호가 될 서울 고척돝구장이 2013년 12월 준공되기까지 별다른 변수 없이 비판적이고 합리적인 담론 속에서 황금알을 낳는 거위로 서울시민들에게 선사될 수 있도록 언론매체와 야구계 및 체육인들의 적극적인 감시와 개입을 요구하는 바이다.

## 참 고 문 헌

- [1] 건교투데이, “야구시즌 오는데...국내 첫 ‘돝구장’ 건립 물 건너가”, 2012. 3. 2. from <http://www.ctn.or.kr/news/articleprint.html?idxno=48020>.
- [2] 경기일보, “안산 돝구장 건설 필요하다”, 뉴스, 2009. 6. 16.
- [3] 경향신문, “동대문 돝구장 재추진”, 신상우 KBO 총재 “상권, 근접성 좋아 민자유치”, KD면, 2006. 1. 17.
- [4] 경향신문, “2011년 서울에 돝구장...고척동 야구장 ‘전명 돝’ 형태 짓기로”, 10면, 2009. 4. 15.
- [5] 고려대 한국어대사전, 다음(daum) 웹서비스, 2009. from <http://dic.daum.net/word/view.do?wordid=kkw000059741&q=%EB%8B%B4%EB%A1%A0>.
- [6] 광주인터넷뉴스, 2009. 11. 25. from <http://www.gjinews.net/ArticleView.asp?intNum=32349&ASction=001022>.
- [7] 광주일보, “광주에 야구돝구장 건립 성사 땀 무등경기장 일대 랜드마크 조성”, 2면, 2009. 11. 5.
- [8] 국민일보, “프로야구 ‘돝구장시대’ 오나”, 19면, 2001, 11. 24.
- [9] 국민일보, “프로야구 돝구장 세운다”, 16면, 2003. 7. 6.
- [10] 국민일보, “야구돝구장 잠실운동장에”, 10면, 2004. 2. 11.
- [11] 김석일, “북경올림픽게임에서 나타난 미디어의 스포츠담론 분석”, 한국체육학회지, 제48권, 제2호, pp.79-89, 2009.
- [12] 김형곤, “언론의 소셜 미디어 담론의 주체 분석”,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11권, 제6호, pp.242-250, 2011.
- [13] 남상우, “평창의 축복인가 재앙인가?: 평창동계올림픽 유치과정정보도의 비판적 담론 분석”, 한국체육학회지, 제46권, 제5호, pp.131-147, 2007.
- [14] 남상우, 김한주, 고은하, “국민 여동생에서 국민 영웅으로: 김연아 “영웅” 만들기과 미디어의 담

- 론전략”, 한국스포츠사회학회지, 제23권, 제2호, pp.61-85, 2010.
- [15] 내일신문, “안산 돔구장 놓고 여야 공방”, 25면, 2010. 4. 12.
- [16] 내일신문, “안산에 국내최초 돔구장 건립”, 14면, 2007. 5. 15.
- [17] 내일신문, “안산 돔구장 ‘독인가 약인가’”, 4면, 2009. 6. 8.
- [18] 뉴시스, “한국인은 토종 포털이 최고”, 2007. 7. 6. from <http://media.daum.net/foreign/america/view.html?cateid=1043&newsid=20070706020107237&p=newsis>.
- [19] 뉴시스, 2009. 11. 25. from <http://media.daum.net/society/nation/jeolla/view.html?cateid=100009&newsid=20091125130906293&p=newsis>.
- [20] 뉴시스, “안산돔구장 건립 민·관협의체서 결정”, 2012. 1. 16. from [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ar\\_id=NISX20120116\\_0010214765&cID=10803&pID=10800](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ar_id=NISX20120116_0010214765&cID=10803&pID=10800).
- [21] 데일리안, 2006. 3. 19. from <http://media.daum.net/politics/others/view.html?cateid=1020&newsid=20060319133006292&p=dailia>.
- [22] 동아일보, “안산시 이어 성남-대구도 돔구장 건설 추진”, 24면, 2007. 10. 3.
- [23] 동아일보, “신재민 차관, 민자유치 돔구장 본격 추진”, 33면, 2009. 4. 1.
- [24] 동아일보, “돔구장 수주 포스코 특혜 논란”, 16면, 2009. 11. 4.
- [25] 동아일보, “안산 돔구장 끊이지 않는 경제성 논란”, 2009. 9. 17.
- [26] 동아일보, “광주 돔구장 무산’ 정치쟁점 부상”, 16면, 2010. 2. 9.
- [27] 머니투데이, “정부, 돔구장 등 스포츠인프라 투자 유도”, 02면, 2009. 7. 2.
- [28] 머니투데이, “돔구장 신도시는 광주 대운하”, 02면, 2009. 11. 25.
- [29] 머니투데이, “고척돔 돔구장 예정대로 진행된다”, 2012. 1. 11. from <http://www.mt.co.kr/view/mtview.php?type=1&no=2012011116194471020 &outlink=1>.
- [30] 무등일보, “기고-돔구장 건설 지역발전에 큰 도움 될 것”, 뉴스, 2009. 11. 6.
- [31] 무등일보, “포스코, 광주 돔구장 건설 포기”, 뉴스, 2010. 2. 8.
- [32] 문화일보, “돔구장이 절실한 이유”, 18면, 2006. 3. 2.
- [33] 문화일보, “KBO총재 올해 돔구장 성사 가능성”, 18면, 2006. 4. 16.
- [34] 박보현, “스포츠 메가 이벤트의 경제발전 담론: 1988서울올림픽과 2002한일월드컵을 중심으로”, 한국스포츠사회학회지, 제21권, 제4호, pp.789-812, 2008.
- [35] 박재우, 박현욱, “Kingdon의 정책흐름모형을 적용한 스포츠정책 변동 사례 연구: 지방 공공체육 시설(야구장) 관련 법 개정을 중심으로”, 한국체육학회지, 제50권, 제6호, pp.113-127, 2011.
- [36] 서울경제, “광주 돔구장 건설 장기 표류할 듯”, 2010. 2. 6.
- [37] 서울신문, “WBC/비와도 스톱 추위도 스톱...돔구장은 언제”. 3면, 2006. 3. 20.
- [38] 서울신문, “광주 ‘돔구장 옆 신도시’ 개발”, 27면, 2009. 10. 30.
- [39] 서울신문, “광주돔구장 무산 지방선거 쟁점 비화”, 25면, 2010. 2. 9.
- [40] 서울신문, “구로 돔구장에 유아시설 설치키로”, 12면, 2010. 11. 5.
- [41] 세계일보, “오세훈 시장, 서울에 3만석 이상 돔구장 건립/고척동 야구장이어 2-3곳 추진”, 12면, 2009. 4. 17.
- [42] 송희영, “신문과 담론분석, 카프카연구, 제15권, 제1호, pp.163-181, 2006.
- [43] 스포츠동아, 2009. 11. 10. from <http://sports.donga.com/3/all/20091109/23996832/3>.
- [44] 신진욱, “비판적 담론 분석과 비판적·해방적 학문”, 경제와 사회, 제89호, pp.10-45, 2011.
- [45] <http://cafe.daum.net/adonisbaseball/EJGT/1073?>

- docid=QFyBlEJGT1073|20120514114530&srchid=IIMI7h2R500#A153E22404FB071B527E4E7&srchid=IIMI7h2R500.
- [46] 아이콘TV, "고척동 돔구장 재검토", 2009. 5. 7.
- [47] 연합뉴스, "뚝섬돔구장 없었던 일로'-서울시, LG에 계약금 반환", 1998. 5. 29. from <http://media.daum.net/breakingnews/view.html?cateid=100000&newsid=19980529104400980&p=yonhap>.
- [48] 연합뉴스, "프로야구 선수협, 돔구장 건립 서명 운동", 2003. 5. 16. from <http://sports.media.daum.net/general/news/moresports/breaking/view.html?cateid=1031&newsid=20030516111308249&p=yonhap>.
- [49] 연합뉴스, "프로야구 선수협, 돔구장 건립 100만인 서명운동", 2003. 6. 16. from <http://sports.media.daum.net/general/news/moresports/breaking/view.html?cateid=1031&newsid=20030616053156285&p=yonhap>.
- [50] 연합뉴스, 2009. 6. 10 from <http://www.yonhapne.co.kr/bulletin/2009/06/10/020000000AKR20090610078500061.HTML?did=1179m>.
- [51] 연합뉴스, "광주, 대구 돔구장 2013-14년 완공", 2009. 10. 29. from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09/10/29/020000000AKR20091029113500054.HTML?did=1179m>.
- [52] 영남일보, "돔야구장 건립 지역에 毒 될 수도", 14면, 2008. 11. 18.
- [53] 영남일보, "대구돔구장 철저한 수요예측 등 신중한 접근 필요", 13면, 2009. 11. 9.
- [54] 이정우, "북한 출판미디어의 여성 권투선수 보도에 내포된 이데올로기 연구", 스포츠사회학회지, 제22권, 제1호, pp.1-20, 2009.
- [55] 이정우, "텔레비전 맥주광고에서 재현되는 스포츠-젠더 담론 분석", 한국스포츠사회학회지, 제23권, 제2호, pp.99-115, 2010.
- [56] 이창섭, 남상우, "스포츠에서의 징크스 담론분석", 한국스포츠사회학회지, 제20권, 제1호, pp.45-65, 2007.
- [57] 일간스포츠, "선수협, 돔구장 건설 100만인 서명운동", from <http://sports.media.daum.net/general/news/moresports/breaking/view.html?cateid=1031&newsid=20050316010527005&p=ilgansports>. 2005. 3. 16.
- [58] 일요신문, 2009. 7. 2. from <http://sports.media.daum.net/general/news/moresports/breaking/view.html?cateid=1031&newsid=20090702134849280&p=ilyo>.
- [59] 전남일보, "광주 돔구장 2013년 완공 100만평 규모 신도시 건설", 1면, 2009. 10. 30.
- [60] 전남일보, "광주 돔구장, 반갑기는 하지만", 01판, 2009. 11. 5.
- [61] 전남일보, "光州 돔구장 건설 일단 무산됐지만", 01판, 2010. 2. 8.
- [62] 전북도민일보, "오세훈 '서울교통요지에 3-4만 돔구장 추진', 뉴스, 2009. 4. 17.
- [63] 프라이مج제, 전갑길 "일방·독선적 돔구장 무산은 당연", 2010. 2. 8.
- [64] 한겨레, "서울에도 '도쿄돔' 같은 야구장 생길까". 13면, 2009. 3. 31.
- [65] 한겨레, "광주 돔구장, 정치색 입히지 말라", 14면, 2009. 11. 4.
- [66] 한겨레, "국내 첫 돔구장은 야구단 없는 야구장?", 22면, 2009. 11. 19.
- [67] 한겨레, "[우리 동네 새 단체장에게 듣는다] 김철민 안산시장 당선자/1조5천억 야구돔구장 사업/시민들에 자료 공개 하겠다", 23면, 2010. 6. 15.
- [68] 헤럴드경제, "고척동 돔구장 일대 문화허브도시로 육성", 뉴스, 2009. 12. 22.
- [69] F. Tonkiss, "Analysing text and speech : content and discourse analysis, in C. Seale(2nd ed.), *Researching Society and Culture*, pp.367-381, 2003.
- [70] L. Heracleous, A tale of three discourses: The

dominant, the strategic and the marginalized, *Journal of Management Studies*, Vol.43, No.5, pp.1059-1087, 2006.

[71] P. Mayring, Qualitative content analysis, *Forum: Qualitative Social Research* 1(2) Retrieved Nov. 25, 2008, 2000, from <http://www.qualitative-research.net/fqs-texte/2-00/2-00mayring-e.htm>.

[72] OSEN, 2006. 3. 18. from <http://sports.media.daum.net/baseball/news/breaking/view.html?cateid=1028&newsid=20060318082512363&p=poctan>.

[73] T. A. van Dijk, "Towards a theory context and experience model in discourse processing," In H. van Oostendorp and S. Goldman(eds.), *The Construction of Mental Model During Reading*, pp.352-369, 1998.

[74] T. A. van Dijk, "Critical discourse analysis," In D. Schiffrin, D. Tannen, & H. E. Hamilton(Eds.), *The Handbook of Discourse Analysis*, pp.352-369, 2003.

#### 저 자 소 개

박재우(Jae-Woo Park)

정회원



- 1999년 2월 : 한양대학교 체육학과(체육학사)
- 2001년 8월 : 한양대학교 생활스포츠학과(체육학 석사)
- 2011년 6월 : Loughborough University, Institute of Sport &

Leisure Policy (Ph.D), 영국

- 2011년 3월 ~ 현재 : 한양대학교 예체능대학 강사  
<관심분야> : 스포츠정책, 스포츠 사회문화 변동